

[로스쿨 소식]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시행결과

I. 개요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지난 2017년 8월 27일(일)에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16개교에서 실시하였다.

(1) 응시자는 전체 지원인원 10,206명 중 92.18%인 9,408명이 응시하였으며, 지구별로는 서울 7,014명, 수원 512명, 부산 576명, 대구 409명, 광주 279명, 전주 177명, 대전 331명, 춘천 66명, 제주 44명이다. 결시자는 응시료 환불자 469명을 포함하여 798명이다. 수험생 중 시각장애인(전맹)과 지체장애인이 포함된 특별관리대상자는 29명이었으며, 별도로 제작된 점자 문제지와 논술답안 작성을 위한 컴퓨터 등이 제공되었다.

(2) 문제지와 정답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 (www.leet.or.kr)에 탑재하였으며, 정답 이의신청 일정과 출제 기본방향 및 영역별 출제방향 등은 다음과 같다.

2. 참고로 협의회에서는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 입학설명회”를 2017년 9월 22일(금)~23일(토),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서울 성동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II. 일반 개황

1. 시험 시간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시험은 1교시 언어이해 영역 (09:00~10:20), 2교시 추리논증 영역 (11:00~12:50), 3교시 논술 영역(14:00~16:00)의 순서로 실시되었다.

2.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및 심사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 이의 신청 접수 : 2017. 8. 27(일) 17시 ~ 2017. 8. 30(수) 17시
- 응시생에 한하여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가능
- (2) 이의 처리기간 : 2017. 8. 28(월) ~ 2017. 9. 6(수)
- (3) 최종 정답 발표 : 2017. 9. 12(화)

3. 채점 및 성적 통지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9월 19일(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적표에는 영역별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가 표기된다. 논술 영역의 경우 추후 수험생이 지원하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한다.

Ⅲ. 출제의 기본방향

-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능한 한 다양한 학문 영역에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출제하였다.
-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분석력, 추리력, 종합적 비판력, 창의적 적용 능력 같은 고차원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 특정한 전공 영역에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Ⅳ. 영역별 출제 방향

1. 1교시: 언어이해 영역

(1) 출제의 기본방향

언어이해 영역은 법률 관련 전문가 및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 소양과 통합적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시험의 기본 방향으로 삼는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원활하게 수학하려면 학부 전공과 상관없이 공적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글들을 독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이 요구된다.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 영역은 텍스트들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대하며 나아가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출제의 기본 방향을 두었다. 이번 시험의 구체적인 출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통합적이며 심층적인 독해 및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 문학비평, 사학, 철학, 정치학, 경제학, 생물학, 기술, 법철학, 민법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내용 및 표현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제시문을 선정 또는 개발한다.
- 제시문의 핵심 정보나 주요 세부 정보들을 이해하고, 제시문의 대의를 파악하며, 정보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분석·종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제시문에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시문에 없는 사항을 추론하거나, 그 정보를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그 적실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 출제 범위

언어이해 영역은 독해를 기반으로 한 언어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영역이다. 이 능력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 폭넓은 유형의 글들을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 그 글들을 바탕으로 적절한 추론과 비판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제시문의 정보를 관련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모두를 뜻한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이번 시험에서는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제시문의 소재를 구하되, 중요한 공적 가치를 지닌 주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언어이해 영역의 여러 평가 목표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시험에서 제시문을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교양 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학문 분야에 두루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범주들을 중심으로 하되, 각 학문 분야의 최신 이론이나 시의성 있는 문제 상황을 반영하는 주제로 제시문들을 작성하였다.

둘째, 문항 세트를 원리적 모델들을 기반으로 설계함으로써 제시문에 사용된 개념이나 범주들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법학의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제시문 대신 학제적 내용 분야와 각 주제들을 연계함으로써 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다양한 학문 분야들이 법적 문제들과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제시문을 선정함으로써 법의 이론적·현실적 연관성을 폭넓게 사고하게 하였다.

다섯째, 최근의 시사와 학문적 동향을 반영하여 제시문 독해만으로도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3) 제시문 및 문항

언어이해 영역의 시험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을 측정하는 데 주요한 목표가 있다. 따라서 이번 출제에서는 가독성이 뛰어나고 취지가 분명한 지문을 바탕으로 독해와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같은 방향은 실질적인 독해 능력을 제대로 점검하는 데 기본 원칙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시험에서는 ‘인문’, ‘사회’, ‘과학기술’, ‘법·규범’으로 분류된 4개 내용영역으로 문학비평, 서양사, 철학, 정치, 경제, 윤리, 생물, 기술, 법철학, 차별금지법, 상속법 등의 분야에서 11개 문항세트(총 35문항)를 출제하였다.

각각의 문항 세트는 세부 정보 이해, 대의 파악, 관점과 의도 파악, 추론, 비판과 적용 등 독해와 관련된 5개 영역을 전제로 제시문 특성에 따라 구성하였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제시문의 다양한 정보들을 <보기>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추론하는 적용 문제를 다수 출제하였다. 정치, 경제, 법철학 등의 분야에 제시된 이 문제들은 수험생들의 논리력과 분석력, 종합적 판단력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제 각 분야별로 제시문 선택의 주안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인문’ 분야에서 문학비평은 황매천·이육사·윤동주를 서양의 비극 개념에 견주어 비교하는 비평문을 제시문으로 선택하였다. 현실을 대하는 시인의 다양하고도 원칙 있는 면모를 분석하는 이 비평문은 법률가에게 필요한 인문적 교양을 갖추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사학은 폴란드의 역사 서술 방식의 변화를 다룬 글을 제시문으로 선택하였다. 20세기 역사의 격변을 배경으로 약소국인 폴란드의 역사 서술을 타산지석으로 살펴보는 이 글은 수험생들에게 보다 타당한 역사의식을 갖추게 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다음으로, 철학은 “태어나는 것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에 대한 베나타의 논증을 비판적으로 소개하는 글을 제시문으로 택하였다. 이 글을 통해 논리적 능력 외에 태어남 자체가 지니는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함을 깨달아 법률가로서 지녀야 할 인본주의적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였다.
- ‘사회’ 분야에서 우선 경제는 신고전주의 기업 이론에 맞선 거래 비용기업 이론을 다루는 글을 제시문으로 택하였다. 기업의 존재 이유를 시장메커니즘과 구별하여 파악하는 이론을 다룬 이 글을 통해 수험생들은 경제주체인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헌정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룬 글을 제시문으로 택하였다. 다양한 정치 체제를 합의제와 다수제라는 틀로 분석한 이 글은 국가의 정치체제와 작동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 ‘법·규범’ 분야에서 우선 윤리는 칸트와 헤겔에 이르는 현대윤리학의 이론 체계를 다루는 글을 제시문으로 택하였다. 이성에 의한 의지가 칸트에서 헤겔로 넘어오면서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체계를 갖추는 과정을 다룬 이 글은 현대 세계에서 윤리학이 구상하는 개인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의 존재 양상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다음으로, 법철학에서는 법 해석의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글을 택하였다. 명확한 것으로 여겨지는 법해석 방식들이 실상은 그 근거가 박약하며 혼란스러울 수 있음을 보여준 이 글을 통해 수험생들은 개론적 지식을 넘어선 새로운 안목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노동과 고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글을 제시문으로 택하였다. 소수자 인권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을 다룬 이 글은 법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판단 및 적용에 대한 시야를 넓혀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속법에서는 유류분 제도의 성립과 변화를 다룬 글을 제시문으로 택하였다.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유류분 제도를 사적으로 분석하는 이 글은 제도의 역사와 내용 그리고 적용에 이르기까지 상속제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과학·기술’ 분야에서 생물은 성 결정 과정을 사람에 중심으로 소개하는 글을 제시문으로 택하였다. 염색체에서 각 성 기관의 형성을 다룬 이 글은 기본 모델에서 구체적 성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해 줄 것이다. 다음으로, 기술은 DNA 컴퓨팅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제시문으로 택하였다. 기존의 컴퓨팅과 달리 DNA를 활용한 사진법 계산을 기반으로 한 컴퓨팅을 다룬 이 글은 생물학과 전산학이 융합되는 사례를 통해 최근 기술의 발전을 잘 보여줄 것이다.

(4) 난이도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서는,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했다고 판단되는 2017학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정하고자 했다. 특히 난잡한 제시문을 통해서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해 능력을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문항을 통해서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따라서 제시문의 가독성은 최대한 높이되, 문항의 독해 능력 점검 정도를 세밀하게 측정하는 문제를 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추론과 적용 영역에서 단순한 추론이나 적용을 묻던 예년의 수준을 벗어나, 제시문의 여러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추론하거나 적용하는 문항을 다수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력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기출 문제나 사설 문제집을 푼 경험으로 문제를 쉽게 푸는 경우도 최대한 방지하였다. 그리하여 대표적으로 법철학 제시문에서 보듯이 제시문의 제재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실질적으로는 전혀 유사하지 않게 하고, 나아가 문항 구성도 기출 문제를 푼 사전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설사 부분적으로 겹치는 내용을 미리 학습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번 시험을 보는 데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없게끔 출제하였다.

아울러 그리고 특정 전공에게 유리한 경우가 없게 하는 것에도 이번 출제진은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해당 전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한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여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였다.

(5)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 언어이해 영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이 주로 통합적 이해력과 심층분석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시문 분량과 제시문 당 문항 수에 융통성을 두었다.
- 제시문의 내용과 문항 구성에 있어서 기존 문제나 사설문제집을 푼 경험에 의존해서는 풀리지 않도록 하였으며, 특정 전공에 따른 유·불리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 출제의 의도를 감추거나 오해하게 하는 질문의 선택을 피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간명한 형식을 취하였다.
- 문항 및 선택지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선택지 선택에서 능력에 따른 변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2교시: 추리논증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추리논증 시험은 제시문에서 주어진 내용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제시된 글이나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로 구성하여 추리력과 비판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전공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도록 정상적인 학업과 독서 생활을 통하여 사고력을 함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되,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에 관한 선지식이 문제 풀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전 학문 분야 및 일상적, 실천적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문항의 제재를 선택함으로써 대학에서 특정 전공자가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영역 간 균형 잡힌

제재 선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시문으로 선택된 영역의 전문지식이 문항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주력하였다. 시험의 성격상, 법을 비롯한 규범학의 제시문을 다소 많이 포함시켰으나, 제시문 및 질문을 최대한 순화하여 법학적 지식 없이 일상적 언어능력과 사고력만으로 제시문을 읽어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리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예년에 비해서 원리적용 문제를 늘림으로써 법학적성시험의 취지에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어떤 규정이나 원칙을 주고 그 원칙을 적용한 사례를 추리하거나 주어진 규정이나 원칙을 적용한 사례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능력이 법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법규범 영역에서 원리적용 문제의 비중을 늘렸고, 인문과 사회과학 영역에서도 원리적용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였다.

(2) 출제 범위 및 문항 구성

추리논증 시험은 법학과 윤리학 등의 규범학을 비롯하여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같은 다양한 학문적인 소재 균형있게 다루었다. 이번 시험의 소재 구성도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법 관련 제재를 다루는 문항 9문항과 윤리학을 포함한 인문학 제재를 다루는 문항 10문항, 사회과학 제재를 다루는 문항 5문항, 자연과학과 융복합적 제재를 다루는 문항 7문항, 그리고 일상적 논증과 논리/수리적 추리를 다루는 문항 4문항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성격의 글들을 골고루 포함하였다.

올해 추리논증 시험은 원리적용의 문항을 늘리기 위해서 추리문항을 70% 정도로 늘리고, 비판(논증)문항을 30% 정도로 출제하였다.

(3) 난이도

제시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전문적인 용어를 순화하였고 지나치게 전문적인 글을 배제하였다. 또한 제시문의 분량이 많아 수험생들이 한정된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문항의 글자 수를 줄여서 독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모든 제시문이 전공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이도를 조절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자주 출제되었던 형식추리 문항이나 논리게임의 문항도 난이도를 낮춤으로써 많은 수험생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논증이나 논쟁적 자료를 분석하고 비판하도록 요구하는 문항들의 난이도도 작년에 비해 낮추도록 하였다.

(4) 출제 시 유의점

- 제시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문의 독해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리논증을 시험을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추리능력과 비판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 추리 문항도 복잡한 형식추리나 모형추리의 문제보다도 법학적성시험의 취지를 맞게 원리적용의 언어추리 문항을 크게 늘렸다.
- 선지식에 의해 풀게 되거나 전공에 따른 유·불리가 분명해지는 제시문의 선택과 문항의 출제를 지양하였다.
- 출제의 의도를 감추거나 오해하게 하는 질문을 피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간명한 형식을 취하였다.
- 문항 및 선택지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선택지 선택에서 능력에 따른 변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3교시: 논술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논술 영역에서는 장차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할 분석적, 비판적, 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법률가에게 합리적 판단을 위한 법적 추론의 능력과 그것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논술 문항은 이런 능력들을 검증하기 위해 인문·사회 분야의 텍스트를 제시문으로 선정하여 해석 능력을 점검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제한된 시간과 분량 내에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2) 출제 범위

법학적성 평가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논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인문·사회 분야 제시문을 선정하되,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하였다. 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지망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시켰지만 법학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글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하는 인문학적 소양과 상식을 갖춘 학생이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3) 문항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논술 영역은 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번 문항은 <보기>에서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입장대립을 제시하고, 수험생으로 하여금 그 중에 어느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고 선택하지 않는 입장을 반박하도록 하였다. 수험생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입장을 취해야 하고 모든 자료를 찬반의 논거로 활용해야 한다. 적절한 자료를 기초로 규칙을 적용하는 능력과 일관된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비판하는 능력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것이다

2번 문항은 세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례형 문제이다. <사례>는 복지재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세대 간 갈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 개의 <제시문>은 이 문제를 해결할 다수결원칙, 정의의 원칙,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구조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수험생은 제시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제시문의 통찰을 활용 발전시켜 세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쟁점과약, 대안제시 및 대안에 대한 근거제시와 관련된 종합적 사고능력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것이다.

(4) 난이도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서는 2017학년도와 비슷하게 난이도를 유지하였다. 법학에 대한 선지식이 답안 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응시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변별력을 가지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5) 유의점 및 강조점

- 문제 유형과 답안 분량을 고려하여 1, 2번 문항의 배점을 각각 40점, 60점으로 차등 배분하였다.
- 과제수행상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문과 조건을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 제시문은 출제 의도를 좀 더 잘 구현하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자료를 적절히 재구성하고 운문하였다.